



그룹 방탄소년단이 22일(한국시간)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아티스트'에 올랐다.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페이보릿 팝송' 부문까지 모두 3개의 트로피를 품에 안은 이들이 시상식 직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L(미국)·사진제공 | 빅히트 뮤직

'빅 위너' 방탄소년단, 그래미만 남았다

美데뷔했던 무대서 2인 가수 첫 대상
페이보릿 팝그룹·팝송 부문도 수상
'버터' 빌보드 핫100 10주 연속 1위
그래미 어워즈 수상 기대감 높아져

"우리는 한국에서 온 작은 그룹이다. 4년 전 이 시상식에서 미국 무대에 데뷔했는데, 당시(아미)들이 없었다면 우리 아무 것도 아니었다.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감사하다."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다.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17년 'DNA'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를 현지 TV 데뷔 무대로 삼은 이후 딱, 4년 뒤 같은 자리에서 팝음악 최고의 영예를 차지했다. 1974년 AMA 제정 이후 한국은 물론 아시아 아티스트로는 처음으로 대상에 해당하는 '올해의 아티스트'(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상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이는 'DNA'의 가사처럼, 절대

"우연"도, 기적도 아니다.

●올해의 아티스트... '빅 위너'

올해 '버터'로 전 세계를 녹인 방탄소년단이 또 하나의 대기록을 썼다. 이들은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시어터에서 열린 AMA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3관왕을 차지했다. 특히 아리아나 그란데, 드레이크, 올리비아 로드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더 위켄드 등 경쟁한 팝스타들을 제쳤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팝음악의 본토인 미국시장에서 주류음악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렸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AMA는 그래미·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대중음악의 3대 시상식으로 꼽힌다.

영국 로이터통신, 미국 CNN 등 외신들은 이날 "BTS가 테일러 스위프트, 드레이크, 아리아나 그란데, 위켄드를 제치고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다"며 "2017년 AMA에 입성한 지 4년 만에 '승자'(Big winner)가 됐다"고 보도

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함께 '페이보릿 팝 듀오 오어 그룹'(Favorite Pop Duo or Group)과 '페이보릿 팝송'(Favorite Pop Song) 등 올해 후보에 오른 3개 부문에서 모두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들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최초로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를 선보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리더 RM은 "한국에서 온 7명의 소년들이 아미의 사랑으로 기적을 이뤘다. 우리는 이 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이런 놀라운 영예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 많은 이에게 우리의 긍정적 인 에너지를 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슈가도 "다 아미 덕분이다"며 팬들에게 공을 돌렸다.

●그래미만 남았다... 24일 후보 발표

방탄소년단은 이제 그래미 무대로 향한다. 이날 수상으로 24일 오전 발표될 내년도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 이름

을 올릴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 또 올해 최고의 히트곡인 '버터'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모두 10주 동안 1위를 차지하면서 그래미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앞서 올해 1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한국가수 처음으로 팝 장르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등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후보와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일반 음악 팬 투표와 차트 성적 등을 기반으로 하는 AMA나 빌보드 차트 등 데이터를 기준 삼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달리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방탄소년단에게 상을 주지 않자 상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미국·백인·남성' 위주로 시상식을 운영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뉴스 HOT 5

동화 '서찰을 전하는 아이' 연극 공연

15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동화 '서찰을 전하는 아이'가 연극으로 만들어져 12월1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공연한다. 연출가 겸 극작가인 한운섭의 역사동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근대화의 격변기인 1894년의 조선을 소년의 시선에서 그린 무대이다. 김학철을 비롯해 장기용, 양형호 등 베테랑 연극자들이 대거 나선다. 특히 KBS 1TV 드라마 '용의 눈물'과 '명성황후'를 제작해 사극 신드롬을 일으킨 스타 연출자 윤홍식 전 PD가 배우로 나선다. 12월2일까지 예매 완료자에게 50% 할인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트와이스 정규 3집 '빌보드 200' 3위

그룹 트와이스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3위를 차지했다. 22일 빌보드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12일 발표된 정규 3집 '포뮬러 오브 러브:O+T=3'(Formula of Love:O+T=3)으로 '빌보드 200' 차트에 올라 자신들의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이들은 6월 미니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로 '빌보드 200' 6위에 오른 바 있다. 또 케이팝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한 해 두 장의 음반을 톱10에 진입시켰다. 이에 힘입어 3집은 이미 선주문량 70만장(한티차트 집계)을 넘어섰다. 한편 트와이스는 12월24~26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월드투어의 막을 열고 내년 2월 미국 등 해외 공연에 나선다.

'스우파' 댄서 제트썬 갑질 의혹 일단락

웹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로 화제에 오른 댄서 제트썬(사진)이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옛 제자와 겪은 갈등을 봉합했다. 앞서 과거 제트썬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가 22일 오전 제트썬이 긴 시간 대화 끝에 "그동안 일에 대해 돌아보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다"고 밝혔다. A씨는 "나 역시도 마음이 편치 않았기에 사과드렸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온라인상 글을 삭제했다.



니쥬, 2년 연속 NHK '홍백가합전' 출연

걸그룹 NiziU(니쥬)가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작품상을 받으며 2년 연속 NHK '홍백가합전'에 나선다. 니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이끄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일본 소니뮤직이 발굴해 지난해 정식 론칭한 그룹이다. 이들은 지난해 말 데뷔 29일 만에 일본의 대표적인 연말 특집프로그램인 '홍백가합전'에 출연한 데 이어 올해에도 무대에 오른다. 또 올해 4월 선보인 두 번째 싱글 '테이크 어 픽처/팝핀 셰이킹'(Take a picture/Poppin Shakin)으로 일본 레코드 대상에서 우수작품상을 받는다. 이들은 24일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코로나에 제작 멈춘 '극한데뷔 야생돌'

MBC 오디션프로그램 '극한데뷔 야생돌'의 출연자와 스태프 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작이 멈췄다. 22일 MBC '극한데뷔 야생돌' 측은 "5명의 출연자와 2명의 스태프가 2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일 스튜디오 녹화 이후 증상이 발현돼 진단검사를 거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작진은 "방역지침에 따라 정기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방역 조치 등을 해왔다"면서 "앞으로 출연진 건강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른 방역에 더욱 더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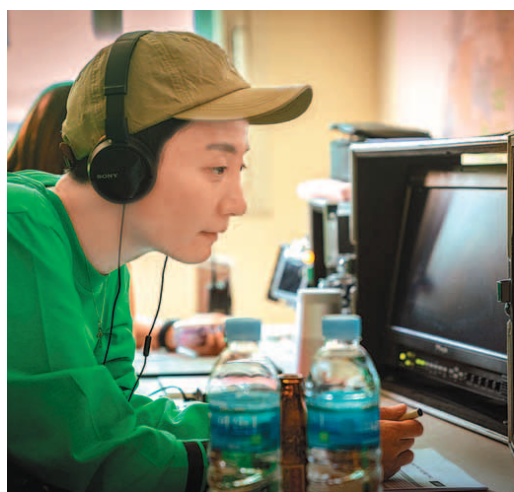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취미로 글쓰던 21년차 배우에서 '흥행 감독'으로

조은지 첫 장편영화 '장르만 로맨스'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라 수차례 각색 참여 '오렌 경험' 결실

영화 '장르만 로맨스'가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면서 연출자 조은지 감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000년 데뷔한 21년 차 배우이면서 이번 작품으로 장편영화 감독에 데뷔한 그의 오랜 노력과 고민이 결실을 맺은 것이어서 향후 빛어낼 또 다른 성과에도 기대가 쏠린다.

'배우' 조은지는 200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눈물'로 데뷔했다. 질풍노도의 시절을 보내는 10대들의 꿈과 좌절을 그린 작품은 그를 비롯해 봉태규와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송중국의 전 부인 박연수 등 '쌍자' 신



인을 기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그는 이후 '아프리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표적' '카센터'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 활약해왔다.

스무 살의 문턱을 카메라 앞에서 넘은



머리카락을 바짝 밀고 '잘하고 싶다'는 의지로 영화 '장르만 로맨스' 촬영현장을 연출자로서 지휘한 조은지 감독(왼쪽 사진)과 영화 '장르만 로맨스'의 한 장면. 사진제공 | NEW

그를 영화 연출의 길로 안내한 것은 글이었다. 20대 중반 "연기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였다. 시나리오나 일기처럼 썼던 글 가운데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2016년 단편영화 연출작

'2박3일'로 이어져 미장센단편영화제에서 수상도 했다. 이후로도 연기활동을 펼치면서 연출의 끈을 놓지 않다 2019년 부은주·송예진 감독과 함께 온니버스 영화 '오늘, 우리'에 참여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정현·양동근 등이 주연한 코미디영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의 시나리오를 각색했다. 본격적인 장편 상업영화의 길에 들어선 셈이다.

'장르만 로맨스'도 각색 작업에서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출연 제안인 줄 알았다"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연출 제의에)고민하다 각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색본을 본 제작진과 뜻이 맞았고, 결국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린 삭발의 다짐으로 현장 모니터 앞에 앉았다.

그는 시사회장에서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또 오랜 고민과 영화에 대한 열정 끝에 흘린 눈물은 21일 현재까지 전국 누적 33만1000여명의 관객을 불러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영화를 올려놓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방송가 "대선 특수 잡아라"

정치소재 시트콤·예능 콘텐츠 붐몰
웹이방 영 '청와대로 간다' 화제
SNL코리아 리부트 시즌2·3 곧 공개

방송가가 '대선 특수'를 겨냥한다. 내년 3월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정치를 소재로 한 시트콤과 예능 콘텐츠가 잇따라 시청자를 찾는다. 시트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와 '청와대 사람들'이 국회와 청와대를 무대삼아 이야기를 그리고, 앞서 각종 정치 이슈를

●국회부터 청와대까지 '현실적'

현재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웨이브로 공개 중인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얼떨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된 율령픽 사적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성령의 이야기를 담는다.

내년 초 공개를 목표로 최근 촬영에 돌

입한 '청와대 사람들'은 제목이 보여주듯 청와대를 무대 삼는다. 레임덕과 갱년기에 시달리는 3년차 대통령 차인표가 각종 위기 상황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는다. 쿠팡플레이는 'SNL코리아 리부트' 시리즈는 다음 달 돌아온다. 시즌1에서 이재화, 윤석열, 심상정 등 각 당의 대선 후보들과 인터뷰를 나눈 콘텐츠는 시즌2·3에서도 정치·사회 현안을 다루는 코너로 확장하고 다양한 정치인도 내세운다.

●"정치 소재=블루 오션"

최근 폭넓어진 OTT 무대는 정치 소재 콘텐츠의 흐름을 이끈 주된 이유로 꼽힌다. 방송가에서는 진영논리로 왜곡되기 쉽고, 시청자의 잦아들기 우려한 탓에 정치 풍

자를 "다루기 까다롭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표현이 비교적 자유로운 OTT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기반삼아 정치 풍자에 대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SNL코리아 리부트'의 안상휘 PD는 22일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높아진 상황에서도 관련 콘텐츠는 찾아보기 쉽다"면서 "일종의 '블루오션'이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일 90일 전(12월9일)부터는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상 선거방송심사에 관한 특별규정도 정치 관련 콘텐츠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SNL코리아 리부트', 'SB S' '집사부일체', 'TV조선' '와카남' 등이 지난달 말 빠르게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일상을 담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